

뉴스와 쟁점 | News & Issue

라틴아메리카 통합과 분열: 남미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 남미공동시장, 태평양 동맹

김기현

남미 독립의 영웅 시몬 볼리바르는 독립투쟁 당시 잠시 피신했던 자메이카에서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구상을 언급했다. “신대륙 전체를 각 지역 간에 밀접히 연결된, 하나의 고리를 가진, 하나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웅대한 구상임에 틀림없다. 우리 모두는 같은 역사, 하나의 언어, 유사한 관습과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제 형태의 단일 정부를 형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의 실현은 지리적 한계, 지역 이기주의, 각 지역 간의 서로 다른 성격 등의 요인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다른 서구 강대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야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분열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결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라틴아메리카 통합을 이야기 할 때 자주 언급하는 ‘시몬 볼리바르의 꿈’이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생전에 라틴아메리카의 통합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도 바로 그런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소망 때문이었다.

라틴아메리카인들 대부분의 가슴 속에 이러한 소망이 항상 잠재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독립 이후 현재 33개국으로 나누어져 있다. 물론 라틴아메리카에서 예전에 통합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통합의 시도는 주로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데, 대표적으로 1960년대 중미시장 통합을 위한 중미통합체제(SIECA), 라틴아메리카 공동시장을 추구했던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ALALC), 안데스 유역 국가들의 시장 통합을 위한 안데스협약(Pacto Andino)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각국 경제적 이익의 상충으로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통합의 시도가 다시 활력을 가지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이때부터 세계화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그와 동시에 지역 블록화가 추진되었다. 지역블록은 세계화와 서로 상충되기보다는 역외 국가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지 않는 한 세계화의 전 단계로 인정되었다. 그로 인해 유럽연합이 탄생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성사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도 다시 지역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이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ALADI)로 전환되고, 안데스협약을 대신해 안데스공동체(CAN)가 조직되었다. 1991년에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새로 탄생했고, 1995년에는 남미공동시장에 대응하는 경제 통합체로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의 G3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한편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만의 경제통합을 넘어 미주대륙 전체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만들려는 구상 아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비롯해 남미에 좌파 정부가 속속 등장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그러한 메가 통합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좌파정부들은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무력화하고 대신 자신들만의 통합을 강화하고자 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실질적인 움직임은 남미공동시장의 확대 강화였다. 현재 남미공동시장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 외에 2006년 G3와 안데스공동체를 탈퇴한 베네수엘라가 가입해 있으며, 볼리비아가 새로운 회



2013년 1월 칠레에서 개최된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정상회담
(이미지 출처: <http://www.cubadebate.cu/>)

원국으로 가입 신청을 한 상태이다.

정치적 성격의 통합도 강조되었다. 무엇보다 베네수엘라가 주도한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동맹’(ALBA)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 볼리바르동맹의 급진적 성격으로 인해 확대가 더 이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몬 볼리바르의 꿈은 2007년 남미 12개국 모두를 묶는 남미국가연합(UNASUR)의 결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미국가연합은 2011년에 라틴아메리카 33개국 모두를 하나로 묶는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로까지 발전했다. 지금까지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정치적 통합이 주로 미국을 포함한 미주국가기구(OAS)나,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포함한 이베로아메리카정상회담 등 외부세력과 함께 하는 조직이었다면,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최초 라틴아메리카국가만의 전체 통합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통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재 라틴아

메리카는 크게 두 개의 블록으로 분열되는 양상이다. 남미공동시장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베네수엘라를 받아들이면서 외연을 확대해 가는 동안, 태평양연안의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가 2013년 태평양동맹 (Alianza del Pacifico)을 결성해 또 다른 세를 확장해 가고 있다. 여기에는 이미 중미의 코스타리카와 파나마가 가입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그 외 대부분의 중미 국가와 에콰도르도 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라틴아메리카는 안데스 산맥을 기준으로 태평양 연안 국가와 대서양 쪽 국가로 완전히 양분된 느낌이다. 태평양 연안국 중에서 태평양동맹에 가입을 주저하는 나라는 앞서 언급한 볼리바르동맹에 가입된 니카라과와 에콰도르뿐이다. 반면 대서양 쪽 국가 중에서 태평양동맹에도 관심을 가지는 나라는 이미 중미통합체(SICA)에 가입한 도미니카공화국과 브라질의 절대적 영향력을 우려하는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뿐이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지역적 분열이 라틴아메리카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된 두 가지 모델의 경쟁의 장이 되었다는 점이다. 태평양동맹의 탄생은 실제 미주자유무역지대 카드가 사실상 무효화된 2005년 이후 당시 페루 대통령이었던 알란 가르시아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집권 시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 ‘포퓰리스트’로 간주되던 알란 가르시아는 2006년 다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시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던 반미주의, 국가개입주의, 보호주의 바람에 맞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와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아시아와 관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동맹을 추진했다. 여기에 콜롬비아와 칠레가 동조하고, 브라질과 라틴아메리카에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멕시코가 가입하면서 현재의 태평양동맹이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태평양동맹은 브라질과 멕시코 간의 라틴아메리카 주도권 싸움인 동시에 두 가지 경제 발전 모델의 경쟁의 장이기도 하다.

실제로 브라질 주도의 남미공동시장 소속 국가들은 주로 중도좌파 정

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최근 경상수지 적자 등이 확대되면서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원산업의 국유화 등을 통해 국가의 개입도 늘어났다. 대외적으로 이들은 반미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대신 유럽과 손잡으려는 제스처를 보여주고



2013년 7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남미공동시장 정상회담
(이미지 출처: <http://www.sibci.gob.ve/>)

있다. 반면 대부분 중도우파 정부로 구성된 태평양동맹 소속 국가들은 그런 경향과 달리 여전히 친시장적 개방화와 외국자본 유입을 통한 경제발전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아시아와 관계 확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정치적으로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와 같은 그들만의 통합 기구를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남미공동시장과 태평양동맹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서로 다른 경제발전의 길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좌파로 간주되던 페루의 새 대통령 우말라가 태평양동맹의 방향을 유지함으로써 그런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따라서 곧 칠레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좌파의 미첼 바첼레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매우 흥미롭다.

김기현 - 선문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